

주민참여형 복지허브 '가속도'

임실군, 강진권역 행복보장협의체 구성·맞춤형 복지팀 신설

임실군이 복지사각시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복지허브화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허브화 정책은 관내 마을권역별로 행복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해 주민들이 불우한 이웃을 직접 찾아서 돕는 형태의 주민자발형 복지사업이다.

임실군에 따르면 지난 해 6월 관촌면과 운암면, 신흥면, 신덕면으로 묶여진 관촌권역에 처음으로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한 데 이어 올해 강진권역(강진면·청음면·덕진면)에도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한다.

이미 강진권역에서는 3개 지역 마을민들이 뜻을 함께해 행복보장협의체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주민과 민간단체로 구성된 강진면 행복보장협의체는 이날 지역내 위기 가정을 발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시세관리대상자에게 집수리를 실시했다.

이 주민은 주변의 도움으로 어렵사리 집을 구했지만, 워낙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단열과 난방, 도배·장판, 전기배선 수리 등이 절실히 필요했다.

이에 따라 임실군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집중사례관리를 통해 강진면과 강진권역 행복보장협의체와 강진교화, 임실로타리클럽 및 임실군자원봉사자

합센터의 도움으로 단열 뿐만 아니라 난방시설, 도배·장판, 전기배선 수리 등을 재빠르게 진행, 쾌적한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이날 지원을 받게 된 주민은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로 인해 난방과 도배·장판, 전기배선까지 깨끗하고 새롭게 변한 보금자리에서 살 수 있게 돼 행복하다"며 봉사자들에게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임실군은 오는 7월 강진권역에 맞춤형 복지팀이 구성되면,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웃을 주민들이 직접 발굴해서 돕는 복지허브화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제57주년 4·19혁명 기념행사가 19일 오후 11시에 남원시 금지면 소재 김주열 열사 묘역 광장에서 이환주 남원시장, 박철웅 전북도복지여성보건의료국장, 이석보 시의회 의장, 조춘태 전주동부보훈지청장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 보훈단체장, 유가족, 시민,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치러졌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 되새겨본다'

남원시, 김주열 열사 묘역서 4.19 혁명 기념식

제57주년 4·19혁명 기념행사가 19일 오후 11시에 남원시 금지면 소재 김주열 열사 묘역 광장에서 이환주 남원시장, 박철웅 전북도복지여성보건의료국장, 이석보 시의회 의장, 조춘태 전주동부보훈지청장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 보훈단체장, 유가족, 시민,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치러졌다.

김주열 열사는 1944년 남원시 금지에서 태어나 금지중학교를 졸업,

1960년 3월 마산상고 합격증을 받기 위해 마산에 갔다가 3.15 부정선거 규탄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시위 중 행방 불명되었다가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서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사체로 떠오르면서 마산시민의 분노와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로 이어져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작년 12월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을 완공하고 처음 치러진 기념행사는 개식,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추모헌시 낭송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열사의 약력 소개와 사업추진에 대한 경과보고, 기념사, 추도사, 추모헌시 낭송, 남원시합참위원의 4719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이환주 남원시장은 기념사에서 유가족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김주열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이념의 갈등과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민주주의의 역사와 존엄성을 지켜나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용굴산 자생식물원 봄꽃 개화 방문객들 발길 이어져

순창군이 섬진강 장군목 일대에 조성한 용굴산 자생식물원 봄꽃이 본격 개화하면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주말부터 철쭉 5만주와 라일락, 꽃잔디 등이 만개해 봄 가족나들이 계획한 방문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군 측은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주차장도 완비해 방문객의 접근성을 강화했다.

순창 동계 섬진강 자생식물원은 3ha규모로 원추리, 철쭉 등 야생화 27종 32만본이 식재돼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올해는 철쭉을 중심으로 한 봄꽃이 본격 개화하고 있어 방문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자생식물원의 강점은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이다. 순창군의 절경으로 잘 알려진 장군목은 요강바위 등 포토존 바위들이 물결이 다듬어낸 기묘한 형상으로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때문에 영화촬영장으로도 각광 받고 있으며 섬진강 수변의 빼어난 절경을 그대로 감상할 수 있다.

천리애향 마실길도 연결돼 있어 봄 향기 물씬 나는 숲속 길을 가족과 함께 산책할 수 있다.

천리애향 마실길의 2코스로 강경마을 주차장에서 마실속박단지까지 이어지는 구간이다. 소나무 숲과 시원한 계곡물 소리와 함께 걷는 산길로 고요히 흐르는 섬진강을 보며 걸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1막 2일 코스로 방문을 원하는 관광객과 캠핑족을 위해 섬진강마실속박단지도 본격적 손님맞이 준비를 끝냈다. 마실속박단지에는 방갈로와 카라반 등을 갖추고 있고 감과 숲을 끼고 있어 캠핑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또 뒤편에는 벌통산 산책로도 갖춰져 있어 가벼운 산책도 즐길 수 있다.

산나는 레포츠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안성 맞춤이다. 자생식물원은 순창군 섬진강 자연거길 2~3코스 9.3km와 연결돼 있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자전거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말에는 철쭉이 80% 이상 개화할 것이다"며 "다양한 색상의 봄꽃과 섬진강의 아름다운 수변생태도 즐길 수 있는 용굴산 사유의 숲 봄나들이에 많은 분들이 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22일 지리산 운봉 바래봉철축제

제23회 지리산 운봉 바래봉 철축제가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지리산 바래봉 기슭과 허브밸리 일원에서 열린다.

바래봉은 해발 1,165m로 지리산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매년 4월말 하단부를 시작으로 5월중순 정상까지 순차적으로 지리산을 붉게 물들이는 전국제일의 철쭉 명소로써 바래봉을 찾는 등산객과 산촌객들에게 지리산의 아름다운 연분홍빛 봄의 비경을 선사한다.

운봉에향회(회장 이정기)에서는 등산객과 산촌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행사와 풍성한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허브밸리 내에 행사장을 마련하고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야생식물 사진전, 먹거리 장터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소방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남원소방서(서장 이홍재)는 5월 중 각종 행사로 인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19일 남원·순창 관내 주요도로에서 소방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 의용소방대원 등 총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

「긴급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라는 대국민 공감대 확산과 양보운전 요령 등 교육효과 제고를 소방차의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긴급차량이 실제 출동 중 플래카드 부착 및 홍보 방송을 실시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훈련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관내 정통시장 및 주요 사거리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방용수시설 주변 발발 주·정차 차장 계도 및 소방차 길 터주기 전단지 배부하는 등 소방출동로 확보 캠페인을 병행 실시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보행자 사고예방 야광조끼 배부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는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39명중 10명이 도로 보행자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타 시군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층이 전체 인구의 30%를 점유함에 따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노인들에게 야광조끼를 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순창시는 야광조끼를 직접 착용시켜주며 최근 새벽시간대 보행자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무단횡단 금지 등 사례중심 안전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교통사고로부터 취약한 노인들의 야간 도로 보행시 차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인성이 좋은 야광조끼를 배부함에 따라 보행자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다문화·한부모 가족 검진기회 확대

순창군이 여성가족부와 중앙대병원, KRX국민행복재단이 주관해 추진하는 '2017년 다문화가족 의료지원 사업'에 선정돼 다문화가족·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다문화가족 의료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무상으로 검진, 예방, 치료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의료검진 수검대상, 검진일 수용능력 등 실사를 통해 순창군을 비롯해 전국 14개 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사업 진행시 지역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1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순창군에는 현재 9개국 300여 다문화 가정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건강검진을 받아보지 못한 가정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이번엔 실시하는 다문

화가족 의료지원사업이 다문화 가족의 건강증진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군측은 기대하고 있다. 실제 이번사업은 소화기내과, 산부인과 등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20여명의 진료팀이 의료장비가 갖춰진 검진버스 등을 이용해 근골격계 엑스레이, 심전도 및 초음파, 기본 체혈(체노) 및 검사 및 압질환 감별 혈액검사, 심리검사(인지기능, 정서력, 집중력 등), 류마티스 질환 등의 검사를 진행한다.

검진결과에 따라 유소견자로 진단된 경우 정밀검사 및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검사결과 중증질환으로 판명시 1인 3백만원 이내에서 치료비도 지원된다. 군은 5월 중 전체 다문화 가족들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다문화 가족이 언어소통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통역 인력지원은 물론 세부사업 일정관리 등 사업운영 제반사항에 대해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이 참좋다

순창 종합 사무기기

팀장 이동선 <렌탈전문> TEL: 063-653-5002 H.P: 010-6633-4070










